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신문왕 행차길 (역사문화 분야)
-------	-------------------

주제	세부 시나리오	
첫인사		<p>안녕하세요 경주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신문왕 행차길을 같이 할 자연환경 안내원 000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문왕 행차길에 있는 자연자원과 신문왕 이야기를 전해 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p> <p>여러분은 지금 신문왕 행차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가요?</p> <p>왕이 행차를 한 길이라고 느껴지나요? 저와 함께 천년전으로 돌아가 신문왕이 행차한 길을 따라서 가볼까요?</p>
도함산 소개		<p>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의 이름을 아시나요? (탐방객 답: 토함산) 네 맞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품고 있는 토함산입니다.</p> <p>토함산이란 이름을 풀이하면 떨어놓을 ‘토’에 머금을 ‘함’자를 써서 토하고 머금은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동해의 안개와 구름을 머금어 토하는 형태의 경관을 자아내어 많은 분들이 동해의 일출을 보기위해 찾는 곳입니다.</p> <p>또한 토함산은 신라시대부터 신라의 5악(동:토함산, 서:계룡산, 남:지리산, 북:태백산, 중:팔공산)으로 불리우며 매우 신성시되어온 산입니다. 다시 말해 신라천년의 역사를 함께한 토함산은 불교문화와 호국의 산으로 여겨진 민족의 숭고한 산이랍니다.</p> <p>이러한 토함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토함산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나 나무 그리고 동물들이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사라지지 않도록 국립공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p>
신문왕 호국행차길		<p>신문왕 호국행차길은 반월성에서 시작해 함월산을 넘어 동해안 감은사와 이견대까지 이르고 있는데요.</p> <p>이 길은 용성국의 왕자인 석탈해가 신라로 잠입한 길이고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고자 한 문무왕의 장례길이며 신문왕이 부왕을 추모하기 위해 대왕암으로 행차했던 길입니다.</p> <p>또한 돌아가신 문무왕과 김유신장군이 내리시는 보물을 받기위해 행차하였고, 용이 전해준 옥대와 만파식적을 받아 돌아오는 길로 충과 효의 이야기가 깃들여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p>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p style="text-align: center;">신 문 왕 호 국 행 차 길</p>	<p>경주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길 중에는 토함산(吐呑山)을 넘는 길과 추령재 길, 함월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p> <p>함월산은 달을 품고 있다고 해서 함월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이 길로 왕이 행차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왕의 행렬은 화려하고 거창하였다는데요.</p> <p>그래서 가파른 토함산길과 추령재 보다는 산세가 비교적 넓게 조성된 함월산 길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p> <p>그 길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걷는 이 길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문 왕 이 야 기</p>	<p>신문왕은 삼국통일 직후 문무왕의 뒤를 이어 681년 신라 제31대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국가 제도를 정비하여 새로운 통치 기반을 마련하고, 내부의 난을 종결하여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였습니다.</p> <p>그럼 신문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p> <p>신문왕의 본명은 김정명 혹은 김명지로 알려져 있으며 아버지는 삼국통일의 과업을 달성하신 문무왕입니다.</p> <p>형이 한 명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병을 얻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문왕이 첫째 아들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둘째아들이었습니다.</p> <p>신문왕은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첫째부인은 신문왕과 대립하던 김흠돌의 딸로 자녀를 낳지 못했고 훗날 김흠돌의 난이 실패하면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p> <p>두 번째 부인인 신목왕후는 어릴 적 신문왕의 형과 정혼한 사이였는데 형이 일찍 죽어 혼자 지내게 되었죠. 그런 왕후를 안타깝게 여겨 신문왕은 어머니와 함께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p> <p>그러다 서로 사이가 가까워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신문왕에 이어 신라 32대 효소왕이 됩니다. 그리고 신목왕후는 신문왕 재위 3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p> <p>신문왕은 강력한 라이벌인 김흠돌과의 대립에서 승리함으로써 신라 중기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중앙 관서와 행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p>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신 문 왕 이 야 기	<p>신문왕과 대립관계를 이루었던 김흠돌은 김유신장군의 막내 여동생의 아들이자 김유신 장군 딸의 사위였습니다. 김유신 입장에서 보면 사위이자 외조카인 셈이죠. 이러한 혼인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신라 중기 당시의 근친결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봅니다. 김유신장군 본인도 조카와 결혼을 했으니 말이죠.</p> <p>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왕실의 전통이 지금도 전해지는 영국에서도 근친결혼은 흔하게 이루어져 왔답니다.</p> <p>그럼 신문왕과 대립을 하던 김흠돌은 누구일까요? 김흠돌은 문무왕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이모인 문명태후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의라는 여인을 사랑하여 청혼을 하지만 자의는 청혼을 거절하고 문무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버렸답니다.</p> <p>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자의에게 원한을 품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비난을 하였지만 문무왕은 흔들리지 않고 자의를 사랑하여 왕비로 책봉했답니다. 김흠돌은 그동안 자의를 괴롭혔던 일들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이모인 문명태후에게 부탁하여 김유신의 딸을 문무왕에게 보냈는데 자식은 태어나지 않았어요.</p> <p>시간이 흘러 문무왕이 김흠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의의 아들인 신문왕을 태자로 책봉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만들지만 그녀 역시 자식을 낳지 못했답니다.</p> <p>그런 와중에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인 문명태후가 죽자 이때까지 저지른 자신의 죄로 인해 불안해 하다가 결국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p> <p>반란에는 삼국통일 이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진골귀족과 그를 따르던 많은 귀족들 그리고 화랑도의 풍월주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의왕후의 친정세력이자 김흠돌의 반대파인 기오공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었답니다.</p> <p>반란을 계기로 태종무열왕부터 내려오는 왕위계승을 지키기 위해 반란의 주동자인 김흠돌과 가담자까지 모두 다 죽이게 되고 그 결과 신하들의 권력은 줄어들고 반대로 왕의 권력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신권정치라고 불렀지만 이 후에는 왕권정치로 부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신문왕은 전제왕권을 확립하고 중앙관서 및 행정정비를 하게 되는데 국사책이나 시험문제에 자주 나오는 9주5소경은 행정정비를 9서당은 군대를 5요제는 왕실의 정통성을 국학설립은 유교적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p>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신문왕 이야기	<p>여러분은 여기서 왕권강화와 왕권전제화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탐방객 답:)</p> <p>왕권전제화와 왕권강화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을 왕권전제화라고 부르고 왕의 권한이 기존보다 강하게 되는 것을 왕권강화라고 말할 한답니다. 즉 왕권이 강화가 되어서 그 누구도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게 되면 왕권전제화가 되었다고 말을 한답니다.</p> <p>신문왕이 왕권전제화를 확립했다는 말은 그 누구도 신문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겠죠.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지 예를 들어보면</p> <p>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녹읍은 신하들에게 일정한 땅에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관료전은 국가에서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다가 월급을 받게 되면 그만큼 신하들의 재산이 없어지는데도 왕에게 반대를 하지 못했답니다.</p> <p>이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군사,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면서 후에 성덕대왕 신종, 불국사, 석굴암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재가 탄생되면서 신라의 황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p>
	만파식적 이야기	<p>앞에서 이야기한 신문왕 호국행차길에서 33천의 신이된 김유신과 용이되어 나라를 지키는 문무왕에게 보물을 받습니다. 보물은 만파식적과 검은 옥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보물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요?</p> <p>신문왕과 만파식적 설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리겠습니다.</p> <p>때는 문무왕이 돌아가시고 신문왕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바다를 관찰하는 해관 박숙청이 신문왕에게 말하였습니다.</p> <p>"동해 가운데 있던 작은 섬 하나가 감은사 쪽으로 떠내려와 파도를 따라 왔다갔다 합니다."</p> <p>왕은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 일관 김춘질에게 점을 치도록 명하였고 일관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p> <p>"돌아가신 임금(문무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을 지키며, 김유신공이 33천의 한 아들이 되어 지금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께서 덕을 같이하여 신라를 지킬 보배를 내리시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 폐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면 반드시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보배를 얻으실 것입니다."</p>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만 파 식 적 이 야 기	<p>왕은 기뻐하며 그 달 7일에 이견대로 가서 그 산을 바라보고 사신을 보내 살펴보기 하였고 사신이 다녀와서 말했습니다.</p> <p>“산의 형세는 거북이 머리처럼 생겼고 그 위에 대나무 한그루가 있었는데, 낮에는 돌이 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p> <p>왕은 감은사로 가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오시에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자 천지가 진동하고 7일 동안 폭풍우가 치면서 날이 어두워졌다가 그 달 16일에야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가라앉았습니다.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으로 가니 용이 검은 옥대를 가져다 바쳤습니다.</p> <p>왕이 용을 영접하여 함께 자리에 앉으며 왕이 물었습니다.</p> <p>"이 산에서 대나무가 둘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p> <p>그러자 용이 말하기를</p> <p>“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는 합친 이후에야 소리가 나게 되어 있으니 성왕께서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징조입니다. 왕께서 이 대나무를 얻어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해 질 것입니다.</p> <p>지금 돌아가신 왕께서는 바다 속 큰 용이 되셨고, 김유신은 천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께서 한 마음이 되어 값으로는 정할 수 없는 이런 큰 보물을 내려 저에게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p> <p>왕은 놀라고 기뻐하며 오색 비단과 금옥으로 답례하고는 사람들을 시켜 대나무를 베어 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니 산과 용이 갑자기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p> <p>왕은 궁궐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 천존고에 보관했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물 때는 비가 내리고, 장마 때는 비가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으므로 만파식적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고 합니다.</p>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만 파 식 적 이 야 기	<p>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만파식적 설화의 의미는 삼국유사에도 적혀 있듯이 왕은 용에게 대나무의 의미를 묻고 용이 말하기를 '비유컨대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나무도 본시 합한 뒤에야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대왕께서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리게 될 상서로운 징조입니다.'</p> <p>이 말의 근거로 생각해보면 만파식적의 뜻은 나라를 '대나무 피리'처럼 다스리라는 것이고 '대나무 피리'처럼 다스리라는 것은 곧 두 개의 것이 합치는 화합의 정치란 뜻하는 것입니다.</p> <p>여러분 “소리로써 나라를 다스린다” 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잘 이해가 안되지요? 신하들이나 백성들도 그러했나 봅니다.</p> <p>그래서 만파식적이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보여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음악은 즐겁거나 이런 분위기를 뿜을 때, 많이 사용하죠? 서로 다른 소리가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합니다.</p> <p>이처럼 왕이 아무리 권세와 힘이 있어도 혼자 힘으로 또는 한 세력의 지배만으로는 평화의 소리를 울릴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p> <p>왕과 신하가, 왕과 백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합심해야 적을 물리치고 가뭄과 풍랑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p> <p>이런 설화가 왜 생겨났을까요? 아시는분 계신가요?</p> <p>이 설화가 나타났을 때는 676년의 기벌포 전투로 신라가 나당전쟁에서 승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제 유민, 고구려 유민과의 갈등 그리고 전란에 지친 사람들은 태평성대가 시작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신문왕을 비롯한 신하들은 이런 분위기를 심어 줘야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만파식적 이야기는 ‘통합과 평화’의 영원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p> <p>또 다른 의미로 만파식적 설화는 '통일'의 두 주역인 문무왕과 김유신을 찬양하면서 호국(護國)의 영원을 표현한 이야기로 해석되기도 하고 특히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유교의 예악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국학설립과 같이 신문왕이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이 견 대	<p>이견대는 사적 159호이고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제30대 문무왕의 수종릉인 대왕암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31대 신문왕이 681년에 세웠다고 합니다.</p> <p>대왕암이 잘 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서 682년에 만파식적 설화에 나오는 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보물을 얻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겠죠? 무엇일까요?</p> <p>네.(대답) 맞습니다. 이곳에서 대나무 즉 만파식적과 검은옥대를 얻었다고 합니다.</p> <p>이견대라는 이름은 주역에서 “비룡재천 이견대인”이라는 문구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p> <p>뜻을 풀이하면 ‘바다에 나타난 용을 보고 나라에 크게 이익이 있었다’입니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주역에 있는 글귀에서 빌려 “큰 용이 바다에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p> <p>신문왕이 세웠다는 이견대는 아마도 세월이 흐름속에 사라졌고 지금 보고 있는 이견대는 1979년에 발굴을 끝내고 신라 건축양식을 추정하여 건축을 한것입니다.</p>
	지 명 이 들 려 주 는 옛 날 이 야 기	<p>● 모차골</p> <p>여러분들이 신문왕 행차길 출발할 때 있던 골짜기를 모차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수레들이 드나들던 골짜기로 마차골로 부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마차의 발음이 전이돼 모차골로 부르게 되었답니다.</p> <p>왜 많은 사람들과 수레가 이 길로 드나들었던 걸까요?</p> <p>동해로 이어지는 이 길은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라의 주요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항상 마차를 비롯한 군수품이 오고 가고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바다에 있는 문무왕릉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신문왕의 마차행렬이 지나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보면 화전민이 일구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작지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곳곳에 산사태를 막기 위한 석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p> <p>이 길은 동해로 가는 여러 갈래의 길 중에 산세가 험하지 않아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걸어 온 이 길로 수 많은 마차와 인원이 이동할 수 있다고 보이나요?</p> <p>● 수렛재 , 말구부리</p> <p>지금 여러분이 쉬고 계신곳이 수렛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p style="text-align: center;">지 명 이 들 려 주 는 옛 날 이 야 기</p>		<p>그 옛날 수레가 넘어다녔던 고개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데요. 모차골과 함께 의미가 잘 전달되나요?</p> <p>오른쪽으로는 추령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는 함월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길은 기림사로 가는 길이고 신문왕이 행차한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구부리라는 말을 알고 있는 분 있나요?</p> <p>말구부리는 말 그대로 말이 그대로 말이 넘어질 정도로 가파른 길을 말합니다. 말구부리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 수릿재의 다른 지명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말이 넘어질 정도의 경사는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 말이 넘어질 정도의 경사였나 봅니다.</p> <p>● 세수방</p> <p>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세수방터가 나옵니다. 세수방이라고 불리는 것은 신문왕 일행이 세수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신문왕이 세수를 했다는 큰 떡돌이 있었는데 모래와 자갈돌 등에 묻혀서 지금은 그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 주변을 보면 불을 땀 흔적과 함께 경작을 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흔적들을 보아 옛날에는 중간에 쉬어가는 곳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p> <p>● 용연폭포</p> <p>세수방을 지나 이 길을 걸어가면 용연폭포가 나옵니다. 다른말로 기림사폭포라고도 하는데요. 용연폭포라고 하는 것은 용이 승천한 폭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용연폭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p>
	<p style="text-align: center;">별 경 표</p>	<p>여기 보면 비스듬히 누워 있는 비석을 볼 수 있습니다. 불령봉표라고 불리는 비석인데요. 봉표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라에서 일정한 곳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계표를 뜻하고 있습니다.</p> <p>이 봉표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신문왕이 만파식적을 가지고 돌아오던 시기와 1천200여 년의 시차를 가지는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p> <p>여러분들은 조선시대의 왕이 되지 못한 세자를 떠올리면 사도세자, 소현세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봉표 또한 조선시대에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효명세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세자였다고 합니다.</p> <p>효명세자의 아버지는 조선의 23대 왕인 순조입니다. 순조의 아버지 정조가 죽자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그리고 순조가 즉위를 하지만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김씨의 힘에 눌려 허수아비 왕으로 지내다가 비장의 카드로 자신의 아들 효명세자를 대리청정하도록 합니다. 효명세자는 3년의 대리청정을 통해서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불 령 봉 표	<p>안타깝게도 병으로 인해 22세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으로 죽었다. 독살 당한것이다. 등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p> <p>불령봉표 비석 전문을 읽어보면 “연경묘 향탄산인 계하 불령봉표 "입니다.</p> <p>여기 적혀 있는 한자를 풀이하면 “ 소명태자묘에 쓸 목탄이 생산되는 산이니 임금님의 명령 없이는 출입을 금지한다 ” 라고 합니다. 이는 산림 보존 지역을 의미할 수 있으며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하고 이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p> <p>즉 효명세자가 죽은 다음해에 묘(묘호 연경)에 사용할 제수 경비를 여기 기림사일대의 생산되는 목탄을 통해 마련하고자 했던 소중한 문자 기록입니다.</p> <p>이 비석은 백성들의 출입과 벌목을 금지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의미는 조금 틀리지만 산림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지금의 국립공원지역과 비슷합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산림과 동물 등 자연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
	국 립 공 원 소 개	<p>국립공원은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이 뛰어나며 여러 환경문제로 인해 멸종되어 가고 있는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입니다.</p> <p>동,식물들이 사라지면 우리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태계가 파괴되어 해충의 천적이 사라져 우리나라 순천에 있는 몇몇 지역은 모기때로 인해서 생활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이 건강해야 우리들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p> <p>이러한 국립공원이 전국에 20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은 지리산국립공원이고 이곳 경주국립공원은 2번째로 지정되었답니다. 경주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국립공원은 무슨형일까요? 네. 산악형과 해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p> <p>경주는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찬란한 불교문화가 있는 불국사 석굴암을 품에 안은 토함산, 야외박물관으로 불리는 남산을 비롯한 8개 지구가 있으며, 국보 12점, 보물24점, 사적 등 총 66건의 문화재와 2000여종의 동식물이 천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p> <p>국립공원 지정이후 경주시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 국가 관리체계로 전환되어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p>용 연 폭 포 전 설</p>	<p>여기 보이는 폭포는 용연폭포입니다. 용이 승천한 폭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용연폭포 오기전에 여러분에게 만파식적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만파식적 설화 중에 신문왕은 용으로부터 대나무와 검은옥대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옥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용연폭포와 관련이 있습니다.</p> <p>전설에 의하면 신문왕이 만파식적과 옥대를 취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행동으로 인해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일까요?</p> <p>왕은 대나무와 검은옥대를 받고 감은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기림사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으며 쉬고 있는데 신라32대 효소왕이 되는 태자 이공이 대궐을 지키다가 이런 일이 있었음을 듣고는 말을 타고 달려와 축하하고 천천히 옥대를 살펴본 다음 왕에게 아뢰었습니다.</p> <p>"이 옥대의 여러 쪽들은 모두 진짜 용입니다."</p> <p>왕이 말하기를</p> <p>"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p> <p>태자가 말하였습니다.</p> <p>"한 쪽을 떼서 물에 넣어 보십시오."</p> <p>그리하여 옥대 왼쪽에서 두번째 쪽을 떼어내어 시냇물에 담갔더니 곧바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그 자리는 못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p> <p>그럼 만파식적과 같이 받아서 온 옥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p> <p>옥대는 못이 험거워지지 않도록 졸라매는 구실을 하고 있죠. 이는 곧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도록 자신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제, 고구려 유민뿐만 아니라 백성 귀족까지 화합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서는 만파식적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p> <p>또한 신라시대에 3가지 보물 중의 하나였다는 진평왕의 옥대와 마찬가지로 왕권의 신성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p>

주제	세부 시나리오	
	용연폭포 전설	<p>설화에서 이 옥대가 진짜 용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태자가 알아차렸다는 이야기는 태종무열왕과 문무왕, 신문왕과 효소왕으로 이어지는 무열왕계 왕실의 정당성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p> <p>옥대가 곧 왕권을 상징하고 왕권의 영원함은 용의 승천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아버지 문무왕, 신문왕, 효소왕으로 이어지는 왕권은 국가의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p> <p>만파식적과 검은옥대는 신라의 번영과 영원함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용연폭포의 유래를 다 아시겠죠? (탐방객 : 예)</p>
	감은사	<p>여러분 감은사는 기림사를 지나 이건대로 가기 전에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의 창건 연대는 삼국유사 기이 제2 만파식적조에 의하면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변에 감은사를 창건하였다.” 라는 기록과 사중기에서는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려고 사찰을 짓다가 마치지 못하고 붕어하여 해룡이 되었는데 그 아들 신문왕이 공사를 마쳤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p> <p>즉 문무왕이 왜병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짓기 시작하여 신문왕이 이를 이어 682년 완공시키고 부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절의 이름은 감은사로 지었습니다.</p> <p>지금 감은사의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그 터와 함께 석조 3층 쌍탑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의 금당의 터는 잘 보존되어 있으며 용이 된 부왕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금당 밑으로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p> <p>탑은 신라초기 석탑의 특색을 보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9.5미터 이고 국보 제 11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탑을 수리할 때 창건 당시 넣어둔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는데요. 사리장엄구도 신라의 예술성을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로 보물 366호로 지정되어 경주국립박물관에 보관중입니다.</p> <p>지금 감은사에서 바다는 보이지만 바닷물은 감은사까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는 감은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p> <p>감은사는 문무왕이 나라를 생각하는 충과 신문왕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입니다.</p>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대 왕 암	<p>문무왕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왜적으로부터 신라를 지키고자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에 따라 화장하여 뿌려진 곳이 대왕암입니다.</p> <p>사적15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안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바위섬의 수중왕릉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신라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p> <p>문무왕은 아버지인 태종 무열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의 침략을 막아 삼국통일을 이루고 또한 병부, 창부 등 중앙관청을 창설하였으며, 지방 통치를 위한 5소경제도와 9서당 10정의 군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국가 체제 완성의 기초를 제공하였답니다.</p> <p>그러면 삼국통일이라는 큰 업적을 남긴 문무대왕의 무덤이 어떻게 바다의 작은 돌섬에 만들어 졌을까요?</p> <p>왕은 죽음을 앞두고 “화려한 능묘란 한갓 재정만 낭비하고 거짓만을 책에 남기며 공연히 사람들의 힘만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내 죽은 뒤 열흘이 되면 궁문 밖 뜰에서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지내라. 그러면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그 후 681년 문무왕이 돌아가자 아들인 신문왕은 부왕을 불교식으로 화장하여 동해의 대왕암에 장사지내고 왕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p> <p>문무대왕릉은 여기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네 방향으로 물길이 나 있는 것을 중앙부분까지 평평하게 다듬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은 동쪽으로 들어와 서쪽으로 흘러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파도가 중앙으로 들어갈때는 파도가 소멸되어 잔잔하게 흐르면서 중앙의 큰바위를 덮을 정도로 물이 항상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p> <p>문무대왕암은 유골의 수장 여부가 그동안 의문점으로 있다가 2001년 한 방송사에서 초음파 탐지기 등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대왕암 내부 TH는 아래에 유골이나 부장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p> <p>조선후기부터 외동읍의 쾌릉이 문무왕릉으로 칭하여 전승되어 오다가 1973년경에 조선전기까지 전해오던 이곳을 문무왕릉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왕릉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p> <p>하지만 이곳을 성역화하고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킨다는 호국의식을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위섬의 암석을 인위적으로 다듬어 왕릉으로 조성한것이라는 주장이 무게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p> <p>문무대왕암은 세계 유일의 수중릉이며 호국의 마음도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재가 아닐까 합니다.</p>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p>왕 의 길 에 서 열 어 가 는 새 로 운 길</p>	<p>여러분은 지금까지 신문왕이 행차했던 여정 중에 모차골에서 용연폭포에 이르는 숲 속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은 효와 호국의 꿈이 천년을 넘는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p> <p>이 길은 평화의 시대를 열고 아버지인 문무왕의 충을 본 받으려는 신문왕의 마음의 여정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p> <p>병장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를 염원했던 문무왕과 신문왕처럼 이 길에서 여러분도 그 동안 바쁜 일상속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충과 부모님에 대한 효, 이웃과는 어떻게 지냈는지 다시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p>
	<p>기 림 사</p>	<p>지금 보고 있는 절은 기림사입니다. 신라 선덕여왕시절에 천축국의 승려 광유가 창건하여 임정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뒤 원효대사가 중창하여 머물면서 기림사로 개명되었고 이 후에 소실되었다가 조선시대 고종 때 재건되었다고 합니다.</p> <p>신라 시대의 절로 16동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국사 다음 가는 규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지만 삼국유사에 신라31대 신문왕이 '동해에서 용으로 변한 선왕으로부터 만파식적을 얻어 가지고 궁궐로 돌아가다가 기림사 서편 시냇가에 잠시 쉬어 갔다는 기록이 있어 최소한 통일신라 이전의 고찰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p> <p>기림사는 또 다섯 가지 맛을 내는 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p> <p>'오종수'라고 불리는데 차를 끓여 마시면 맛이 으뜸이라는 감로수와 그냥 마셔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화정수, 기골이 장대해진다는 장군수, 눈이 맑아진다는 명안수, 물빛이 너무 좋아 까마귀가 쪼았다는 오탁수가 있습니다.</p> <p>그러나 일제시대때에 장군이 태어날까 두려워 물길을 막아 버렸다는 장군수와 명안수, 오탁수 제외하고 감로수와 화정수는 지금도 다른 물맛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물 맛이 다른지 한번 드셔보세요.</p> <p>이곳은 신라때부터 왜구들이 서라벌을 침입하는 길목이므로 호국사찰의 성격을 띄고 있는 절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p> <p>광복 후에는 교통이 불편한데다가 불국사가 대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사세가 역전되어 지금은 불국사의 말사입니다</p>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기 림 사	<p>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건칠보살좌상과 석조차미 등이 있으며 조선 역대 왕들의 글씨도 보관되어 있고 특이하게 비석모양의 나무에 사적(벼슬아치의 명부)을 기록한 목비가 있습니다.</p> <p>또 다른 특징은 절에서는 바깥을 내다볼 수 있으나 바깥에서는 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숨어들기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 의병들이 무술을 연마하는 은거지가 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p> <p>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러한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p> <p>기림사에 있는 불상 중에 건칠보살좌상(보물 제415호)이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후 옷칠한 것이 특징인 보살상인데요.</p> <p>조선시대 불상과 비교해보면 얼굴모습이나 큰 체구에서 이국적인 조형감이 느껴져 중국 명나라 조각의 영향이 있었던것으로 추측되지만 의상과 얼굴에서 조선이나 원나라의 불상의 특징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것으로만 추측을 한답니다.</p> <p>그 밖에 이곳은 김시습 사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시습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p> <p>생육신의 한분으로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임금님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모든 관직을 버리고 전국을 유람하다 남산 용장골 장사라는 곳에서 7년 동안 은둔해 계실 때 쓴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지은분입니다. 사당안에는 김시습의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습니다.</p> <p>이처럼 기림사는 천년이 넘는 시간동안 있어왔고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까지 오랜 세월 호국사찰로서 그 역할을 해온 유서깊은 절입니다.</p>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p style="text-align: center;">끝 인 사</p>	<p>여기까지 오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옛조상의 흔적, 이야기 등을 들으며 신라시대때 왕의 행차 길을 따라 왔습니다.</p> <p>그 당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자연의 질서를 이루고 자연과 동화되어 있는 우리 선조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다음세대에 전해 주어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인것 같습니다.</p> <p>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소중한 경험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신문왕 행차길 탐방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될 날을 기다리며 자연환경안내원 000 이었습니다.</p>